

제 3호 【루계 제 2 5 2 4호】

주체 1 0 8 (2019)년 1월 1 2 9

토요일 음력 1 2 월 7 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조선로동당위원장에서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 애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중 화 인 민 공 화 국 을 방 문 하 시 였 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습근평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초청에 의하여 주체108(2019)년 1월 7일부 터 10일까지의 기간에 중화 인민공화국을 방문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 고 리설주녀사께서 동행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리수용, 김영철, 박태성 당중앙위원 회 부위원장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리용호외무상,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 원인 노광철인민무력상,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인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리일환, 최동명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들을 비롯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의 국경도시 단동에 도착하였다.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간부들이 수행 하였다.

르신 원수님을 최고의 국빈으로 열렬 와있었다. 히 환영하고 최대의 성의를 다하여 극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리설주녀사와 진히 환대하였다.

현지시간으로 7일 밤 9시 30분 중화인민 시였다.



송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장이 경애하는 맞이하고 수도 베이징까지 안내하면 중국당과 정부는 형제적중국인민에 장, 진구발 료녕성당위원회 서기, 륙동 원수님을 뜨겁게 맞이하면서 충심으로 서 극진히 환대하여주고 진심어린 성 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대한 두터운 신뢰와 우의의 정을 안으 복 중국철도총공사 총경리, 리진군 주 되는 열렬한 환영의 인사를 드리였다. 의를 다하고있는데 대하여 사의를 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시고 새해 첫 정치일정으로 중화인민 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갈해 공화국에 대한 력사적인 방문길에 오 응 단동시당위원회 서기가 단동역에 나 녀성들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드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라신 전용렬차가 중국측 간부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 락부장과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담화 를 부여하며 영접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팽려원녀사가 따뜻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회의 위임에 의하여 송도 중국공산당 매번 국경도시까지 마중나와 친절히 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와 리설주녀사께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렬차에 오르시 중국방문을 습근평동지와 중국당과 정부 함께 렬차에서 내리시여 마중나온 여 송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 가 고도로 중시하고 대단히 중요한 의의 인민대회당에 도착하시자 습근평주석과 를 나누시였다.

시기에 진행되는 김정은동지의 이번 인민공화국 주석과 상봉하시였다. 특별히 지시하였다고 하면서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동지들사이 의 상봉이 원만한 성과를 거 두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말하였다.

현지시간으로 8일 오전 11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 베이징에 도착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베이징 역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 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인 왕호녕 당중앙위원회 서 기처 서기, 중국공산당 중앙 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채기 베이징시당위원회 서기가 영 접하였다.

또한 지재룡 중화인민공화 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 대사가 맞이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렬차에서 내리시자 귀여운 어린이들이 꽃다발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마중나온 중국의 당과 정부 간부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

습근평총서기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송도부장이 누시고 숙소인 낚시터국빈관으로 향하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 8일 오후 5시 인민대회당에서 중국공 송도부장은 매우 특별하고도 관건적인 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습근평 중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

(2면으로 계속)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중 화 인 민 공 화 국 을 방 문 하 시 였 다







(1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와 습근평주석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불과 9개월 남짓한 사이에 네번째로 은 이 세상 가장 지심깊고 억세인 뿌리 에 떠받들려 진정으로 신뢰하는 동지관 계, 그 어떤 풍파에도 끄떡없는 불패의 인민대회당에서 성대히 거행되였다. 친선관계로 승화발전된 조중 두 나라사 천하에 과시하였다.

습근평주석은 김정은동지께서 새해 첫 대외활동으로 중국을 방문하신데 대 하여 열렬히 환영하면서 이번 방문이 중 들이 도렬해있었다. 조관계의 발전을 훌륭히 인도하는데서 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습근평동지가 였다. 년초 사업이 긴장한 속에서도 바쁜 시간

를 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리설주녀사께서는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에서며 조선민주 였다. 이루어진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의 상봉 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 워져있었고 중국인민해방군 륙군, 해군, 며 열렬히 환호하였다. 공군명예위병대와 군악대가 정렬해있었 으며 두 나라 국기와 꽃묶음을 든 어린이 _ 손을 혼드시며 따뜻이 답레하시였다.

조중최고령도자들께서는 각기 두 나 에서 진행되였다. 을 내여 방문일정을 구체적으로 조직하 _ 라 당과 정부간부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 고 세심한 관심을 돌려준데 대하여 사의 시며 인사를 나누시고 사열대에 오르시 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리수용, 김영철

새해 정초 또다시 상봉한 기쁨을 금치 _ 습근평주석과 팽려원녀사와 함께 두 나 _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고 경애하는 _ 이 참가하였다. 못하시며 반갑게 굳은 악수를 나누시고 라 국기를 배경으로 뜻깊은 기념사진을 원수님께 중국인민해방군 륙군, 해군,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안내를 받으시며 중국인민해방군 륙군, 서기인 정설상 판공청 주임, 중국 해 환대해준 습근평총서기동지와 중국 - <mark>중화인민공화국방문을 환영하는 의식이</mark> - 해군, 공군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였다. -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양결지 - 당과 정부의 친근한 동지들에게 사의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린이들에게 조중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께서 사에 빛나는 장을 연 해로 기록된 지난해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과 조선로동당

중국측에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표명하시였다. 공군명예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왕호녕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습근평주석의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서기처 청하여주고 열정적으로 성심성의를 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습근평주석과 함 중앙외사사업위원회 판공실 주임, 왕의 표하시고 조선당과 정부, 전체 조선인민 환영의식장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께 어린이환영대렬앞에 이르시자 어린이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국무위원 겸 이 보내는 훌륭한 축원의 인사를 전하 이의 훌륭하고 위대한 단결을 다시금 만 국 국기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들이 세 들이 두 나라 국기와 꽃묶음을 높이 흔들 외교부장, 송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시였다. 대외련락부장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 기속에서 다시금 인사를 서로 나누시며 정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에도 조중친선이 경 애 하 는 원 수 님 께 서 와 **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원수님** 조중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친선과 단 특별히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라고 말하 습근평주석께서 환영의식장에 들어서시 **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결, 교류와 협조를 시대적요구에 맞게 계로 되게 하는데서 이번 방문이 매우 중 자 참가자들이 열광적인 박수로 맞이하 습근평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사이의 가일층 강화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광동 요한 역할을 하게 될것이며 이 계기를 통 회담이 환영의식에 이어 인민대회당 의 관심사로 되는 국제 및 지역문제 특 해 온 세계에 조중친선의 불변성, 불패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조선로동당 중앙 을 공동으로 연구조종해나가는 문제와 관련하여 심도있고 솔직한 의사소통을

우리 나라 애국가와 중화인민공화국 _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리용호외무상 _ 당과 정부가 견지하고있는 자주적립장들 에 대하여 호상 리해와 지지, 현대성을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해 정초부 당중앙위원회 서기처 서기, 중국공산당 터 바쁜 일정을 모두 미루고 따뜻이 초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중친선단결 는 동지적이며 진지하고 친선적인 분위 에 이어 두 나라 관계에서 매우 의의깊은 더욱 공고한 단계로, 더욱 발전적인 관 히 조선반도정세관리와 비핵화협상과정 성을 다시한번 뚜렷이 과시하게 될것이 라고 말씀하시였다.

> > (3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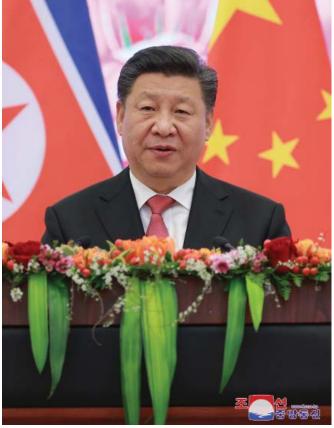






경 애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중 화 인 민 공 화 국 을 방 문 하 시 였 다











(2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중친선은 두 통을 계승하여 조중친선관계를 계속 공 말하였다. 고발전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노력을 기 울일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투쟁에서 새로운 성과와 거대한 승리 하였다. 를 쟁취해나가리라는 굳은 확신을 표명 하시였다.

민을 대표하여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여주고있다고 하면서 습근평주석은 조선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중화인민공화국방문을 다시한번 열렬 당과 정부가 대내외적으로 훌륭한 성과 습근평주석은 조선측이 주장하는 원칙 중국방문을 환영하여 중국공산당 중앙 의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국무위원 겸 히 환영한다고 하면서 김정은동지께서 들을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 적인 문제들은 응당한 요구이며 조선측 **위원회 총서기인 습근평 중화인민공화** 외교부장, 송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2019년 새해에 즈음하여 중국을 방문하신 하며 동지로서, 벗으로서 김정은동지의 의 합리적인 관심사항이 마땅히 해결되 국 주석이 8일 저녁 인민대회당에서 성 대외련락부장, 리진군 주조 중화인민공 것은 시기적으로 볼 때 매우 특수하고 중 지도하에 조선로동당의 사회주의위업수 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하 **대한 연회를 마련하였다**. 대한 의의를 가지며 중조친선관계를 중 행에서 더 큰 새로운 성과가 이룩되리 며 유관측들이 이에 대해 중시하고 타당

를 보여주는것으로 된다고 말하였다.

습근평주석은 중국인민의 친근한 동지 나라 로세대령도자들께서 친히 맺어주시 이고 벗인 김정은동지와 함께 깊이있는 제 및 지역문제에 대하여 깊이있는 의견 후방이며 견결한 동지, 벗으로서 쌍방의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인 노광철인 고 키워주시였으며 특수한 정세하에서 의견교환을 진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당 을 교환하였다. 더욱 빛나게 발전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적교류, 문화교류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 조선로동당과 정부는 지난날과 마찬가지 서의 교류와 협조가 활발히 진행되고 중 라 최고령도자들사이의 밀접한 의사소통 발휘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로 앞으로도 중국측과 일치단결해나갈것 조 두 당, 두 나라의 친선관계가 력사적 과 솔직한 의견교환, 조률을 통하여 유익 이며 두 당, 두 나라의 긴밀한 협조의 전 인 발전을 이룩하고 보다 증진되였다고 한 정세발전을 이끌어내고 추동하여 쌍 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 수행원들이 연회에 초대되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 어선 조선반도정세를 옳게 관리하여 국 러 분야에서 고위급호상래왕의 전통을 견 이 초대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중국공산당의 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고 과감 제사회와 반도를 둘러싼 각측의 리해관 지하고 확대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새로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 세련된 령도밑에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 하고 영명한 결단을 내려 여러가지 중 계에 부합되게 조선반도핵문제의 궁극적 계획들에 대하여 합의하시였다. 회주의길로 곧바로 나아가는 중국인민 대한 조치들을 취하면서 평화애호적이고 인 평화적해결립장을 계속 견지할데 대 의 신심에 넘친 모습과 나날이 발전하는 발전을 지향하는 조선측의 희망과 기대 하여 일치하게 동의하였다. 중국의 실상을 직접 보면서 힘을 얻고 를 국제사회앞에 보여줌으로써 국제적영 있다고 하시면서 중국당과 인민이 중 향력을 제고하고 전세계의 커다란 지지 핵화목표를 견지하고 싱가포르조미수뇌 습근평주석은 초청을 쾌히 수락하고 그 원인 양결지 중앙외사사업위원회 판공실 화민족의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기 위한 와 리해, 열렬한 환영을 받고있다고 말 회담에서 이룩된 공동성명을 성실히 리 에 대한 계획을 통보하였다.

말하였다.

방의 리익을 수호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 _ 화국사이의 외교관계설정 70돐이 되는 새

행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해결을 추구 이는 김정은동지의 전략적결심이 정확 하는 우리의 기본립장에는 변함이 없다. 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하다는것을 실증해주며 조선인민들의 리 고 하시면서 조미관계개선과 비핵화협상

시하고 중국당과 인민에 대한 깊은 신뢰 라는것을 확신하며 진심으로 축원한다고 하게 문제를 처리하는것이 옳바른 선택 리수용, 김영철, 박태성 당중앙위원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반도의 비 국을 공식방문하실것을 초청하시였으며 주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

습근평주석은 중국당과 정부, 중국인 익과 시대의 흐름에 부합된다는것을 보 과정에 조성된 난관과 우려, 해결전망에 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전부장,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위원인 채기 베이징시당위원회 서기, 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과 정부간부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이라고 하면서 중국측은 지난날과 마찬 부위원장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 쌍방은 또한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국 가지로 앞으로도 조선동지들의 믿음직한 치국 위원인 리용호외무상, 조선로동당 근본리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정세안 민무력상,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 쌍방은 조선반도정세와 관련한 두 나 _ 정을 위해 적극적이며 긴설적인 역할을 _ 국 후보위원인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 1부부장, 리일환, 최동명 조선로동당 중 조중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께서 _ 앙위원회 부장들을 비롯한 수행간부들과

또한 지재룡 중화인민공화국주재 우

원회 위원인 왕호녕 당중앙위원회 서기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습근평주석이 처 서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편리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위원이며 서기처 서기인 정설상 판공청 주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 회담은 시종 따뜻하고 동지적이며 친 원이며 서기처 서기인 곽성곤 중앙정법 위원회 서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 치국 위원이며 서기처 서기인 황관명선 화국 특명전권대사를 비롯한 중국의 당

(4면으로 계속)







경 애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중 화 인 민 공 화 국 을 방문하시였다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과 리설주녀사께서 습근평주석과 팽려원녀사 의 안내를 받으시며 연회장에 나오시였다.

전체 연회참가자들은 날로 개화발전하 는 조중친선의 력사에 거대한 진폭으로 주의혁명과 건설에서 주목할만 한 성과 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두리에 굳게 뭉 새로운 활력을 부어주고계시는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을 열렬히 환영하

습근평주석은 지난 한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이하는 경사스럽고 아름다운 시 기에 김정은동지와 리설주녀사께서 중 국당과 정부, 인민에 대한 조선당과 정 부, 인민의 깊고도 두터운 친선의 정을 안고 또다시 중국을 방문하여 새해 중조 관계발전의 서막을 열어놓았다고 하면서 김정은원수님과 리설주녀사의 중국방문 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100일사이에 중국을 3차례 방문한데 이 조중친선의 전면적부흥을 이룩하려는 굳 은 전통적인 중조친선을 매우 귀중히 여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한데 대하여 언급 는 절찬을 받았다. 기고있으며 중국인민에 대한 친선의 정 하시였다. 을 품고있다는것을 충분히 보여주고있다 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70년간 중조 두 당, 두 나라와 두 나 고 열렬한 새해인사를 보내시였다. 라 인민은 순치의 관계를 맺고 서로 지 지하고 고무격려하면서 전진해왔으며 두 라 최고령도자들의 상봉은 지난해 조중 또다시 상봉하시였다.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에서 위대한 성과를 관계가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승화발전 이룩하였다고 긍지스럽게 말하였다.

운 력사의 한폐지를 펼치였으며 새로운 국동지들과 굳게 손을 잡고 온 세계가 부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고 훌륭히 공고히 하며 훌륭히 발전시키 는것은 중국당과 정부의 시종일관하고도 지를 피력하시였다. 확고부동한 립장이라는것을 다시금 천명

면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 대한 부흥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대장정 연회에서는 습근평주석이 축하연설을 제3차전원회의가 제시한 새로운 전략적 으로 축원하시였다. 로선을 반드시 관철하여 조선의 사회주

라 관계발전력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치는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없는 특기할 사변들로 가득찬 지난해를 습근평주석은 김정은동지께서 지난해 위대한 새 력사, 빛나는 새시대에 맞게 특별히 준비한 예술공연이 있었다.

고 하면서 김정은동지와의 공동의 노력 이루어진 이번 방문에 대한 중국당과 정 계 꽃바구니를 전하시였다. 에 의하여 중조래왕의 새 력사를 개척해 부의 뜨거운 환대와 극진한 관심에 깊은 설정 70돐이 되는 해라고 하면서 지난 국공산당원들과 중국인민에게 가장 뜨겁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습근평주석은 중조관계는 이미 새로 력으로 되였다고 하시면서 올해에도 중 과 팽려원녀사가 반갑게 맞이하였다.

며 조중공동의 힘으로 조선반도와 지역 의 평화와 안정을 확고히 수호해나갈 의

사에 일흔번째 년륜을 아로새기는 올해 습근평주석은 조선당과 인민이 사회 에 형제적중국인민이 습근평동지를 핵심 로동당의 령도밀에 당중앙위원회 제7기 에서 끊임없는 성과를 이룩하기를 충심

조중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의 의건설위업을 힘있게 추동함으로써 보다 훌륭한 연설은 참가자들로 하여금 격동 휘황한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표 된 심정으로 2018년 조중친선의 잊지 못 할 나날들을 되새겨보게 하였으며 새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답례연설을 하시 _ 에 보다 밝고 아름다울 두 나라 관계의 미래를 확신하게 하였다.

연회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조중관계의 인 중국방문을 환영하여 중국예술인들이 습근평주석, 팽려원녀사와 새로운 상봉 원인 채기 베이징시당위원회 서기가 환

어 새해 정초에 또다시 중국을 방문한것 은 의지를 안고 새해의 첫 정치일정으로 아오르게 한 공연은 관람자들의 아낌없 는 이날 오전 수행간부들, 수행원들과 사 총경리, 리진군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성의있고 열정 공장을 참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해 정초에 적인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 출연자들에

사의를 표하시고 조선로동당원들과 조선 습근평주석, 팽려원녀사와 함께 무대에 국 위원인 채기 베이징시당위원회 서기, 습근평주석에게 친히 쓰신 감사서한을 습근평주석은 올해는 중조외교관계 인민의 이름으로 습근평주석과 전체 중 오르시여 감사를 표하시고 출연자들과 송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 보내시였다.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권대사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두 당, 두 나 는 습근평주석과 1월 9일 베이징호텔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리설주녀사와 함 징동인당주식유한공사 총경리인 고진곤 선단결사에 특기할 또 하나의 사변으로 되게 한 굳건한 초석으로, 힘있는 원동 께 베이징호텔에 도착하시자 습근평주석 당부서기와 공장의 책임간부들이 따뜻이 서 조중최고지도부의 전략적의사소통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습근평주석 발전단계에 들어섰다고 하면서 중국당과 러워하고 후세에 길이 전해질 조중친선 과 각별한 동지적우정과 친분관계를 더 서 가장 오래고 이름있는 중국전통약품 정부는 전통적인 중조친선을 고도로 중 의 아름다운 서사시를 계속 써나갈것이 욱 두터이하시며 허심탄회한 담화를 하 생산기업인 베이징동인당주식유한공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 는 습근평주석과 팽려원녀사가 마련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 중국의 력 한 오찬을 함께 하시며 화기롭고 단 란한 분위기속에서 즐거운 담소를 나 보시였다. 누시였다

를 거둔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 _ 쳐 《두개 백년》목표와 중화민족의 위 _ 또다시 특색있는 장소에서 특색있는 분 위기의 오찬을 성의있게 마련하고 초대 였다.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찬을 마치 시였다. 신 후 습근평주석과 작별인사를 나누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습근평동지의 특별한 관심과 환대속에 사소한 불편도 없이 훌륭하고 보람있는 방문을 진행한 연회는 시종일관 친선과 우애의 정 넘 데 대하여 만족을 표하시고 감사의 인사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을 약속하시며 작별인사를 나누시였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 원회 위원인 왕호녕 당중앙위원회 서기 나시면서 방문기간 성대하고 열렬한 환 경애하는 원수님과 리설주녀사께서는 처 서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 영과 진실하고 훌륭한 환대를 베풀어준 장, 리진군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

맞이하였다.

을 생산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제약공정들을 참관하시며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생산현장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습근평주석이 돌아보시면서 진취적이고 완강한 노력 으로 생산과 기술제고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며 훌륭한 발전의 길을 걸어온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앞으로 기업 경영에서 더 큰 성공이 있기를 축원하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현지시간으로 9일 오후 3시 중화인민 공화국에 대한 력사적인 방문을 성과적 으로 마치시고 베이징을 출발하시였다.

회 위원인 왕호녕 당중앙위원회 서기처 경애하는 원수님과 리설주녀사께서는 서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 송하였으며 송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 장내를 조중친선의 후더운 열기로 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회 대외련락부장, 륙동복 중국철도총공 함께 베이징동인당주식유한공사 제약분 특명전권대사가 단동역까지 동행하여 바 래워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단동역을 떠

조중 두 나라 인민들과 국제사회의 커다란 관심속에 새해 정초에 진행된 경애하는 원수님을 베이징동인당주식 경애하는 원수님의 중화인민공화국에 대 유한공사 리사장인 왕귀평당서기, 베이 한 방문은 조중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친 더욱 강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2004년말에 건립된 이 공장은 중국에 을 수호하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계기로 된다.

본사기자







번 영 황 한 휘

환희와 행복속에 맞이한 새 해의 첫기슭에서 사람들이 슴벅차게 절감하는것은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크나큰 긍지와 자 부싞이다.

민족의 운명이시며 미래이신 경 애 하 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전체 인 민이 앞날에 대한 부푸는 희망의 꿈을 안고 맞이한 2019년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따 르는 사람들의 열화같은 신뢰와 흠모의 마음이 비낀 노래가 높이 울리는 1월이다.

나라와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무한한 헌신, 정력적인 령도로 강력한 사회주의국가건설 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정치경륜에서 사람들은 새해와 더불어 희망찬 미래를 굳게 확신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위대한 사상리론가, 탁월한 령도의 거장이시다.

그이께서는 슬기로운 예지와 비범한 실천활동으로 강력한 사회주의국가건설위업완성의 진로를 밝히시고 나라와 인민을 령 도하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사상리론은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사색과 탐구의 결실이다.

그이의 사상리론활동은 시대가 제기하는 절박한 문제들에 명쾌 한 해답을 주는 과학성과 진리성 으로 빛나고있다.

사상리론에서 중요한것은 시대 의 요구를 어떻게 반영하는가 하 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시 는 사상리론과 로선, 정책에는 인민대중의 지향과 의사, 시대의 요구가 반영되고 창조와 건설에 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구체적 현실에 맞게 자주적으로, 독창적 으로 풀어나가는 방법론이 구현

되여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리론활 동은 숭고한 인민관으로 일관되

여있다.

그이께서 내놓으신 사상리론과 로선, 정책들은 인민에 대한 크 나큰 믿음과 사랑으로부터 출발 한것이다.

나라의 근본인 인민대중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인민 의 리익보다 더 신성한것은 없 다는것, 인민대중의 편의를 최우 선, 절대시하고 인민대중에게 철 저히 의거하는것, 이것이 그이의 사상리론에 관통되여있는 중요한 워칙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은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 의라는 정식화, 인민대중제일주 의를 철저히 구현하고있는 국가 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이민위천 을 좌우명으로 삼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이 내놓으실수 있는 것이다

그이의 천재적예지와 불면불휴 의 로고와 심혈에 의하여 일심단 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 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은 곧 사 회주의강성국가라는 고전적정식 화가 나오고 전민과학기술인재 화와 자강력제일주의에 관한 사 상.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이 제시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렬한 애 국의 숨결과 의지가 맥박치고 천 리혜안의 예지가 빛발치는 탁월 한 로선과 정책, 그이의 무비의 헌신에 의하여 짧은 기간에 나라 의 존엄과 지위, 국력강화에서 괄목할만 한 성과와 기적이 일어 나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련된 령도는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는 새 전변의 시대를 펼치고 과학기 술전당과 려명거리, 백두산영웅 청년발전소를 비롯한 창조물들이

일떠서게 하였고 황금 산, 황금벌,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하였다. 경제의 주체화, 현 대화, 정보화, 과학화가 힘있게 추진되여 자체의 힘으로 만든 비 행기가 하늘을 날고 지하전동차 가 땅속을 달리고 성능높은 고기 배들이 바다를 항해하는것과 같

은 기적적현실을 낳았다. 지난해만 하여도 전체 인민이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 한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에 뗠 쳐나 자립경제의 토대를 일층 강 화하였다.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은 강력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힘있는 추동 력이라고 하시며 모든 부문, 모 든 단위에서 자력갱생, 자급자족 의 구호를 높이 들고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하여 자강력을 끊임없 이 중대시키며 생산적앙양과 비 약을 일으켜나가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 에 의하여 금속, 화학, 기계제작 공업과 경공업, 과수업, 수산업, 방대한 대건설을 비롯한 여러 부 문에서 경제발전을 추동하고 인 민생활향상을 도모하는 비약적인 혁신이 일어났다.

민족적단합과 조국통일성업실 현을 위하여 크나큰 로고와 심혈 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의 숭고한 민족애와 현명한 령도 에 의하여 북남관계발전과 통일 을 위한 길에서 새로운 전환적국 면이 열리였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열망하는 겨레의 지향과 요구를 헤아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공화국이 준엄한 정세하에서 도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조국통일로선과 정책을 일관하게 견지하도록 하시여 민족에게 조 국통일의 희망과 신심을 북돋아 주시였다.

지난해에 북남관계발전을 위한 대전환방침을 제시하신

그이께서는 여러차례의 북남수뇌 상봉과 회담을 마련하시여 북남 관계개선의 새로운 전환을 안아 오시였다.

지난해를 의의있게 장식한 민 족단합의 귀중한 성과들은 분렬 의 비극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평 화와 통일, 번영의 새 력사를 써 나가시려는 그이의 원대한 구상 과 확교한 의지, 통이 큰 결단과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옹력에 의 하여 마련된 고귀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비범한 외 교지략으로 세계정치정세흐름을 주도하여나가시는 자주외교의 거장이시다.

시대의 변천과 력사의 흐름을 환히 통찰하고계시는 그이께서는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조선반도 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수호에 커 다란 공헌을 하시였다.

세인을 경탄케 하는 그이의 령활무쌍한 대외활동에 의하여 자주, 평화, 친선을 지향하는 국 가들과의 선린우호, 친선협조관 계는 새로운 높이에서 발전하고 장구한 세월 첨예하게 대치하여 온 조미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여 가는 세기적인 사변이 일어났다.

현실은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나라와 민족은 그 어떤 고난과 시련, 력사의 돌풍속에서도 자 기 발전의 궤도를 따라 곧바로 나아갈수 있다는 철리를 확증하 여주고있다.

국력을 강화하고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는것을 국가활동 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시고 불 면불휴의 로고와 심혈, 정력적인 실천활동으로 사회주의건설을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강대한 조선이 있고 휘 황한 미래가 있다는것이 새해를 맞이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서 더욱 굳어지는 신심이며 락 관이다.

본사기자 리 설

《위대하고 훌륭한 지도자》, 《강력하고 탁월한 지도자》

매혹과 국 제 사 회 계 의

《세계의 각광을 받으시는 조선의 최고령도자는 어떤분이 신가.

오늘날 수많은 전문가들의 관 심을 모으고있는것이 바로 이 문 제이다.

각국의 정계, 사회계 인사들과 평론가들로부터 (개성이 뚜렷한 정치가〉, 〈위대하고 훌륭한 (강력하고 탁월한 (2018년 세계정치계 지도자〉. 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지도자〉로 칭송받으시는 김정은각하는 높은 지도력과 특출한 자질을 갖춘 국가령도자이시다.》

이것은 이란의 일나통신이 인 터네트홈페지에 올린 글의 일부 분이다.

로씨야련방공산당 연해변강위원 회 제1비서는 정치와 군사 등 모 든 분야에 정통하신 김정은동지 는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와 영광 의 기치이시다, 진보적인류는 세 계의 평화와 자주화위업수행에 불 멸의 공헌을 하시는 그이를 가장 걸출한 정치가로 열렬히 흠모하고 있다, 김정은동지의 뛰여난 자질 과 풍모는 만민을 매혹시키고있다 고 강조하였다.

로씨야지역사회조직 《보로지 노》 위원장은 김정은최고령도자 에 의해 사회주의위업은 계속 승 리적으로 전진하고있으며 조선은 날이 갈수록 국제정치의 중심으 로 되고있다, 세계인민들은 조선 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사변들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있다 고 말하였다.

이 나라의 인터네트홈폐지들인 《빠뜨리오띄 모스크바》, 《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세계 모으고계시는것은 그이의 출중한 령도력과 비상한 전개력, 대담하고 혁신적인 안 목때문이다, 그처럼 멋진분이시 니 조선도 인류가 경탄하는 별 세상으로 전변되고있다, 멋진 정 치, 멋진 령도자에 대한 매혹과 찬탄의 열기는 날이 갈수록 뜨겁 게 달아오르고있다고 전하였다.

이란, 로씨야에서뿐아니라 광 범한 국제사회계가 비범한 정치 적자질과 세련된 령도력으로 주 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출위인상에 경탄을 금치 못하 고있다.

인디아인민당 고위지도자는 다 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과 회담 이 진행되고 공동성명이 채택되 는 력사적순간들을 보면서 세계 는 놀라움을 표시하였다.

이것은 전세계를 들었다놓

았다. 존경하는 김정은각하의 특히 거룩하신 영상을 뵈오며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세상사람들은 김정은각하께서 지니신 천재적인 예지와 령도의 현명성에 탄복하였다.

라오스신문 《꽁탑빠싸손라 오》는 이렇게 서술하였다.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최근 년간 조선은 경제건설과 국방분 야에서의 비약적발전과 과감하고 주동적인 대외활동에 의한 세계 평화보장 등의 많은 성과들을 이 룩하였다.

이것만 놓고보아도 국가령도자 로서의 그이의 능력을 잘 알수 있다.

자주정신이 투철하고 지도력이 뛰여난 정치가, 창조적능력이 높 고 실천력이 완강한 지도자, 이 것이 조선의 최고령도자에 대한 국제사회계의 인식이다.

국가정치가로서의 김정은각하 는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확고

하고 자주적대가 강하며 도덕의 리심이 매우 깊은분이시다.

에짚트신문 《알 아흐바르 알 마싸이》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 였다.

조선의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는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니고계 신다.

그이께서는 수령영생위업의 새 로운 력사를 창조하시고 빛나게 실현하시였으며 혁명선배들을 존 대하고 동지들에게 극진한 사랑 을 베푸신다.

또한 온 나라를 도덕의리가 차 넘치는 화목한 대가정으로 꾸려 나가신다.

조선사회가 뜨거운 사랑과 정 으로 더욱 굳게 단합되게 된것은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계시기때 문이다.

고상한 도덕의리에 기초한 인 간관계, 사회관계가 전면적으로 꽃퍼나고있기에 조선은 국제사 회가 경탄하여마지않는 온 사회 의 일심단결이라는 기적을 마련

할수 있었다. 타이주체사상연구조직 위원장 은 김정은각하는 조선인민의 걸출한 령도자이시며 위대한 정치가이시다, 조선에서 이룩되고 있는 모든 성과들은 무비의 담력 과 배짱, 뛰여난 지략과 령군술을 지니신 그이의 탁월한 령도를 떠

나 생각할수 없다고 격찬하였다. 조선인민과의 련대성 및 조선 통일지지 아랍위원회 위원장은 조선을 세계적인 강국으로 더욱 빛내여가시는 김정은각하께서는 세계인민들의 끝없는 존경을 받 고계신다고 하면서 전체 인민이 자기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 친 바로 여기에 조선사회의 불패 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P

인민들이 좋아해야 한다

주체102(2013)년 6월 어느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창성각을 찾으시 였다. 그곳의 여러 식사실들을 돌아보신 그이께서 는 군주민들의 80돐상과 결혼식상, 생일상을 찍은 사진첩과 그들이 쓴 감상록도 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전쟁로병부부의 80돐생일상을 차려준 것을 찍은 사진도 있는데 그때 초청되여온 로병들 이 모두 좋아하였다니 자신께서도 기쁘다고 하시 였다. 그러시면서 일군들의 사업에 대한 제일 공 정한 평가는 인민들의 목소리라고, 인민들이 좋 다고 하면 다른 평가가 더 필요없다고 하시였다. "었지만 그이께서는 온몸이 흠뻑 젖는것은 아랑굣 그이께서는 일군들은 무슨 일에서나 인민들이 좋 하지 않으시고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공장로동자 아하게 하여야 한다고,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이 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모든 사업의 기준이라고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비발속에서 찍으신 기념사진

주체105(2016)년 6월 어느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개건된 평양곡산공 장을 찾으시였을 때는 비가 많이 내리고있었다.

그날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모든것이 마음에 들고 보면 볼수록 기분이 좋다고, 또 하 나의 소문거리, 자랑거리가 생겼다고 만족해하 신 그이께서는 인민들에게 질좋은 당과류를 더 많이 생산공급할수 있게 원료보장대책도 세워주 시였다.

공장을 떠나실무렵에는 비가 더 세게 내리고있

본사기자

인민생활향상을 국가의 제 일가는 중대사로 내세우고 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새해 정초에 발표하신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사랑과 믿음의 정치가 인민들에게 뜨겁게 가닿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문명한 생활을 향유하도록 지 못하고있다. 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이고 에 없는 극도의 고온현상으 마다하지 않으시고 새로 개 였다. 의지이다.

강력한 사회주의경제 를 일떠세우고 인민생 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모든 힘을 집중할데 대 로 밤에조차 견디기 어려울 건된 평양무궤도전차공장을 위, 평평 내리는 찬눈도 아 한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을 정도였다. 잠간 서있기만 찾으시여 공장의 개건정형 위해 공화국에서는 인민생활 해도 순식간에 덮치는 폭열 향상에 국가적힘을 집중하고 속에 금시 숨이 막히는것만

있다. 지난해에 진행된 제16차 있자고 해도 땀으로 미역을 국가발명전람회, 제8차 도종 감는것 같아 그 더위를 가시 합식료공장제품전시회, 강냉 이가공품품평회, 수의방역부 로, 해수욕장을 찾고있던 때 문 과학기술발표회 및 수의 였다. 하지만 온 나라 가정 약품전시회, 전국8월3일인민 의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소비품전시회, 《전국신발전 시회—2018》, 전국농업부문 과학연구토론회 및 성과전시 회 등은 공화국이 인민생활 향상에서 얼마나 큰 전진을 가져오고있는가를 잘 말해주 교있다

이 놀라운 성과는 인민에 이에 강원도와 평안남도, 함 대한 열화와 같은 사랑을 지 경북도, 량강도를 주름잡으 니시고 애민헌신의 길을 끝 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을 걷고 또 걸으시였다. 원수님의 헌신의 로고와 그이께서 두달도 안되는 짧 무궤도전차를 보시며 반년전 윤택하여질 행복의 래일을 현명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 은 기간에 찾으신 단위는 무 에 비하여 무궤도전차의 질 그려본다. 수 없다.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 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에도 인민사랑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였다.

THE PERSON OF TH

지 않으시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전국의 공장, 기업소들 을 찾고 찾으시던 경애하는 인민들이 보다 유족하고 원수님의 헌신의 로고를 잊

지난해의 삼복철은 례년

같고 그늘속에 가만히 앉아

원수님께서는 삼복의 폭열을

함경북도에서 강원도에로,

황해남도, 평안남도를 찾으

신데 이어 또다시 단 며칠사

시며 현지지도의 머나먼 길

러 수십개에 달한다.

길을 이어가신것이다.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겨울에도 여름에도, 낮에도 길을 이어가시였으니 말그 사람들은 지금도 지난해 대로 보통의 각오와 의지로 의 질도 좋아졌는데 이 모든 삼복철의 무더위를 아랑곳하 는 엄두조차 낼수 없는 초 것이 다 우리 공장들에서 생 인간적인 고강도의 강행군길

이였다.

고저 사람들이 물놀이장으 마음을 놓으시겠다고 하시

평안북도에서 량강도에로, 는 삼복의 폭열이 대지를 뜨

시였다.

거리를 누비는 새형의 무궤 며 환하게 웃으시는 그이의 도전차에도 어리여있다.

과 공장에서 생산한 새형의

무궤도전차를 보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며 바쁘신 시간을 내시여

그날의 숭고한 인민사랑

한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겁게 달구던 때에 현대화한

무궤도전차를 보시려 또다

시 무궤도전차공장을 찾으

이 월등하게 개선되였다고,

시내를 돌아보시였다.

모든 의장품들의 질과 문화 성이 현저히 개선되였으며 밤에도 불철주야의 강행군 바닥고무와 유리고무레 등 고무제품들과 수지장식합판 산한것이라니 더 기쁘고 더 더욱 고맙다고. 대단히 만족 그이의 인민사랑은 평양의 하며 백점만점짜리라고 하시 애민헌신의 모습을 우러르며 지난해 한겨울의 추위도 사람들은 격정을 금치 못하

이뿐이 아니다. 인민 들에게 하루빨리 문명 한 생활조건을 마련해 주시려고 삼복의 무더

늦은밤 무궤도전차를 타고 리도 기쁘시여 환하게 웃으

랑곳하지 않으시고 삼지연 군건설장을 한해에 세차례 나 현지에서 지도하여주시 고 평안남도 온천지구를 찾 로부터 며칠후에는 무궤도 으시여 깊은 밤 억수로 쏟아 전차를 자신께서 타보아야 지는 소낙비를 맞으시면서 도 인민들의 건강치료에 좋 은 온천수를 발견한것이 그

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인민의 행복속에 자신의 헤치시며 현지지도강행군의 의 화폭이 아직도 눈에 선 기쁨을 찾으시는 그이의 끝 없는 헌신과 로고속에 인민 생활은 나날이 향상되고있으 며 행복의 웃음소리 높아가 고있는것이다.

> 희망찬 새해아침에 인민들 의 유족하고 문명한 복리증 이날 옷깃을 적시며 비오 진을 위한 휘황한 설계도를 듯 흘러내리는 땀방울도 아 펼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랑굣하지 않으시고 새형의 신년사에서 사람들은 나날이

> > 본사기자 주일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력사적인 북남 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여 조 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 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라 는 구호를 온 민족이 높이 들고나갈데 대하여 밝혀주

《력사적인

김행하여

시였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 가 신년사에서 제시된 이 구 호를 높이 들고 력사적인 북 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 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 나갈 때 올해 북남관계개선 과 평화번영, 조국통일운동 에서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 이다. 갈수 있다.

지난해 채택발표된 판문 점선언과 9월평양광동선언 은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 쳐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자신의 손으로 개척해나갈 것을 확약한 민족자주의 선 언이다.

판문점선언에는 북남관계 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 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 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나갈데 대한 '문제, 조선반도에서 첨예한 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조시킨 모습들은 온 겨레에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 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며 항구적이고 공고 한 평화체제를 구축할데 대 한 문제 등 조선반도의 평화 와 번영을 이룩하는데서 나 시되여있다. 서는 실천적문제들이 담겨 져있다.

전성기를

조선반도의

9월평양공동선언은 온 게 판문점선언을 전면적으 로 충실히 리행하여 북남 관계발전을 더욱 가속화하 며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 화번영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실천강령

9월평양공동선언에는 북 과 남이 비무장지대를 비 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 적적대관계종식을 조선반 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 인 전쟁위험제거와 근본적 인 적대관계해소로 이어나 가는 문제, 호혜와 공리공 영의 원칙에서 교류와 협력 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 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 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 을 강구해나가는 문제, 화

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위한 여러가지 사업들이 명 참으로 북남선언들에는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평화와

열어나가자!》

소와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 류, 조선반도를 가장 평화 롭고 길이 번영하는 민족의 참다운 보금자리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과 방도들이 구체적으로 밝 혀져있다.

70여년의 민족분렬사상 일 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극적 인 변화가 일어난 격동적인 해였던 지난해에 북남관계 에서 일어난 사변들은 북남 통일을 위한 길에서 큰 전진 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 여주고있다.

북과 남의 체육인들이 국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힘 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 해와 통일열기를 뜨겁게 고 것이다.

내외에 과시하기 위하여 다 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여러가지 장애와 난판을 적극 추진하는 문제 등 북 극복하면서 추진된 철도, 도 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로, 산림, 보건을 비롯한 다 양한 분야의 협력사업들 역 시 우리 민족끼리 서로 마음 과 힘을 합쳐나간다면 못해 북과 남사이의 적대관계해 낼 일이 없다는것을 세계앞 에 보여주었다.

> 지금 외세는 북남관계를 저들의 구미와 리익에 복종 시키려고 하면서 민족의 화 해단합과 통일을 실현하려 는 겨레의 힘찬 진군을 가로 막으려고 책동하고있다.

그러나 북과 남이 굳게 손잡고 겨레의 단합된 힘 에 의거한다면 외부의 온 갖 제재와 압박도, 그 어 떤 도전과 시련도 민족번영 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해나 의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우 갈 때 이 땅의 평화번영과 리 민족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 는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리행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 제경기대회에서 공동으로 쟁을 힘차게 벌러나감으로 써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 을 떨치고 예술인들이 평양 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 과 서울을 오가며 민족적화 가는데 적극 이바지해야 할

본사기자 김철민

경상북도 경주에 있는 첨성대는

돌을 잘 다듬어서 둥글게 쌓아올린

여기에서 특징적인것은 밑단의 네면

첨성대 꼭대기에 올려놓은 기구를 역

우리 나라에서 기상천문관찰의 력사

우리 선조들은 고조선시기에 벌써 천

문기상을 관측하고 기록하였으며 농사

와 관련한 력서도 만들어 리용하였다.

640년에는 태양에 흑점이 있고 그 위

치와 크기가 끊임없이 변한다는 사실

을 발견하여 세계천문학발전에 큰 기

당시 우리 선조들은 별의 움직임과

구름. 바람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관측하였으며 일식과 월식, 사계절의

변화와 가물과 큰물같은 현상을 미리

경주에 있는 첨성대밖에도 고려시기

개성에 세운 첨성대도 있었는데 지금

돌로 된 축대부분이 남아있다.

을 동, 서, 남, 북과 일치시킨것이다.

첨성대는 높이가 9.1m에 달한다.

시 일정한 방위를 가리키고있다.

7세기 전반기에 세워진 천문대로서 세 계에서 오늘까지 남아있는 천문대가운

데서 제일 오랜것이다.

는 매우 오래다.

여를 하였다.

알아내였다.

즐거운 마식령에서의

산세가 하도 험하여 말도 산발마다에 울려퍼진다. 쉬여가는 고개라는 뜻에서 식령에 자리잡은 마식령스키 장의 첫 일과는 대화봉에서 의 장쾌한 해돋이를 부감하 는것으로부터 시작되다.

그리고는 아침의 설경속에 스키를 타겠다고 누구라할것 없이 싱갱이질이다. 드디여 스키주로를 따라 지치고 미끄 러지고 어푸러지며 스키타기 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의 희 열과 랑만에 넘친 웃음소리가

익숙된 솜씨로 주로를 지 쳐내리며 민첩하게 스키를 타는 애호가들의 담찬 모습 과 스키를 처음 타보면서도 마음만 앞서 주로를 지쳐보 겠다고 덤비다 넘어지며 딩 구는 모양은 보는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낸다.

마식령스키장에 펼쳐진 즐 거움의 세계속에 사람들은 시간가는줄 모른다.

눈갈기를 뽀얗게 흩날리며 살같이 내달리는 눈오토바이 도달할수 있고 스케트장에 이르면 휘거면 휘거, 속도빙 상이면 속도빙상, 호케이면 호케이 마음먹은대로 얼음의 세계에서 맛볼수 있는 즐거 움을 한껏 누릴수 있다.

진 마식령호텔로 향한다. 한겨울의 추위를 가뭇 잊 게 하는 수영장이며 한번 들 어갔다 나오면 미남미녀가

된다는 미용실과 리발실,

장기, 윷놀이를 비롯한 각

저녁이면 사람들은 멋들어

실과 경쾌하고도 즐거운 춤 가락이 절로 흘러나오는 무 도장, 포근한 침대와 문화후 생시설들이 그쯘히 갖추어진 호실들에서는 사람들의 요구 에 따라 가족별로 혹은 개 별적으로 충분한 휴식을 할 수 있다.

마식령호텔안의 상점들에 서 《마식령》 상표를 단 상 품들을 고르는 재미도 좋지 만 이곳에서 봉사하고있는 마식령특산음식들을 맛보는

로는 10분이면 대화봉정점에 종 유희를 할수 있는 오락 재미 또한 기막히다.

음식가공에는 마식령지구 에서 찾아낸 손꼽히는 샘물 발에서 절로 돋아나는 산나 물들로 각종 료리들을 가공 하여 봉사하고있다. 마식령의 산나물로 만든

산나물밥, 마식령참나물김 치, 마식령더덕산적, 마식 령고사리볶음, 마식령밝은 쟁이볶음 그리고 마식령술 과 마식령다래크림 등 이름 만 들어도 군침이 돌 정도의 명료리들을 봉사받는 사람들 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지워 질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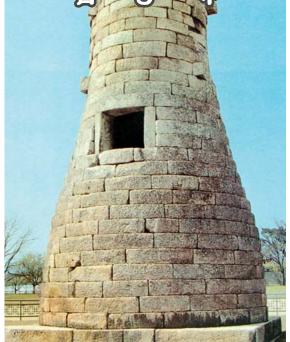
눈부신 겨울의 서리꽃으 로 단장한 마식령의 하루는 좋은 세월속에 문명을 누려 가는 인민들의 행복한 모습 을 담아싣고 즐겁게 흐르고 있다.

본사기자 현은경

최근 영양가가 높고 질병 예방치료작용도 하는 건강식

료품인 검은 마늘에 대한 인

기가 높아지고있다.



양가가 높고 맛이 독특한것 으로 하여 식생활에서 양념 감으로 널리 리용되여왔다.

력사 유적

검은 마늘은 생마늘 을 발효시키거나 열가 공하여 만든 제품이다. 이 제품은 가공과정에

멜라노이드색소형성반응파 효소에 의한 밤색변화반응 이 일어나 속살이 까맣게 변하므로 검은 마늘이라고 부른다.

양념남새작물인 마늘은 영

그러나 생마늘은 조직이 파

괴될 때 생성되는 여러가지 화합물들이 자극적인 냄새와

매운맛을 내기때문에 그냥 먹기 힘들고 지나치게 섭취 하면 위점막과 간, 눈에 자 극을 준다.

마늘의 이러한 부족점을 냄새와 매운맛을 내는 물질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검은 마 늘은 맛이 독특하고 영양가 운 과일맛을 내는 성분들 와 기능성이 높다.

들이 새큼달달하고 향기로 로 변하므로 먹기가 대단 히 좋다

또한 인체의 생리적기 능을 높여주는 기능성이 강해진다. 검은 마늘을 생마늘을 검은 마늘로 만드는 과정에 여러가지 항 가공하면 우선 영양가가 산화물질들이 합성되여 항산 높아지고 맛이 좋아진다. 화활성이 5~10배로 높아지 당은 약 5.8배, 단백질은 므로 질병예방치료효과가 더 좋아진다.

본사기자

로인들이 추위를 더 라는 리유

늙은이들은 젊은이들보다 추위를 더 타는데 그것은 로 인들의 신진대사와 체온조절 기능과 관련되여있다.

년기나 청년기에 비해 신진 대사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유기체의 기능도 낮아진다.

또한 로인들의 신체활동도 현저히 줄어들고 조직기관기 능이 감퇴되며 이에 따르는 대뇌의 체온조절중추기능도 떨어져 환경온도가 변화되는 데 맞게 체온조절반응을 신 속히 하지 못함으로써 체온

이 약간 낮은 상태에 있다. 자료에 의하면 60살부터 인을 대상으로 하여 체온을 재여본 결과 그들은 젊은 사 람들의 정상체온보다 0.3℃

낮았다고 한다.

유기체의 신진대사기능이 약해지고 열량이 줄어들며 체온조절중추기능이 떨어지 사람이 로년기에 이르면 중 기때문에 로인들은 기온이 낮아지면 몸이 잘 적응되지 않는다.

> 결국 나이가 많을수록 불 리한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 은 약해지며 더 추워하는것 이다.

> 그러므로 추위를 막고 몸 을 덥게 하는것은 로인건강 관리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 구로 된다.

가정들에서는 늙은이들의 건강에 항상 주의를 돌리며 90살까지의 1 000여명의 로 기상예보에서 날씨가 차진다 고 하면 제때에 옷을 껴입도 록 관심해야 한다.

본사기자

조선비단은 가볍고 질길뿐 아니라 아름다운 무늬와 부 드러운 손맛을 가지고있는것 으로 하여 먼 옛날부터 세상 에 널리 알려졌다.

족은 이미 원시시대 말기와 고 대시기에 베, 모시와 함께

우리 민

질좋은 비단들을 많이 생산 하였다.

세나라시기에는 비단짜는 기술이 일본에까지 전파되

비단생산



본사기자

받고있다.

그가운데서 특히 지방은 평안북도의 녕변, 평 안남도의 성천, 함경남도의 금야, 정평, 고원, 리원, 북 청, 단천, 함경북도의 길주,

고 아름다우면서도 우아한

빛갈과 부드러운 촉감으로

하여 우리 민족은 물론 다른

나라 사람들속에서도 호평을

명천, 강 원도의 철 원 등이였 오늘도 조선비단은 섬세하

하여 비타민A를 많 이 포함하고있다. 또한 칼시움이 풍 부하게 들어있으며 단백질, 기름질, 광

추어를 미꾸리,

미꾸라지라고도 하

는데 그것은 비늘

이 없어 미끌미끌하

다는 뜻에서 나온것

미꾸라지는 다른

동물성식료품에 비

이다.

물질 같은 영양소들 과 함께 여러가지 약리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 당뇨병, 간질환, 돌림감기 등을 예방, 치료하

는데 효과가 높다. 미꾸라지감자국을 만들려면 음식감으로 미꾸라

지 350g, 감자와 소고기 각 각 50g, 적당한 크기의 풋

고추 3개, 파 1대, 된장과 고추장, 기름은 각각 반숟가 는 그저그만이였다. 보쌈김

과연 고추는 파. 마늘이 대신할수 없는 양념감의 으

이 좋은 고추를 가지고 어 떤 좋은 반찬을 만들수 없

아마 조선의 가을풍경을 말하라고 하다면 집집마다 빨간 고추타래들이 주렴처 럼 추녀에 매달려있는 기이 한 모습을 보태야 할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기국이 고 물고기반찬이고 하다못 해 남새반찬에도 고추가루 가 안들어가면 채 손이 가 지 않은 음식이라고 여길것

그렇지! 고추가루의 매큼

이다.

가루를 친 된장을 시어머니 한테 선참 맛을 보였다. 시 어머니는 여러번이나 저가락 으로 찍어 고추가루를 친 된 장을 먹어보더니 《된장을 그냥 먹기보담 이게 훨씬 나 은것 같구나. 난 왜 이런 궁 냥을 하지 못했을가.》하고 탄식하는것이였다. 이렇게 되여 이날 아침 밥상에는 방 금 뜯은 싱싱한 부루와 함께 고추가루를 친 된장이 오르

락정도 그리고 약간의 마늘, 고추가루, 후추가루, 소금을 준비한다.

더 많아지며 본래의 불쾌한

미꾸라지는 해감을 뺀 다음 푹 삶아 으깨여 뼈를 추려놓 는다. 파는 엇썰고 마늘은 다 지머 풋고추는 송송 썬다. 소 고기는 잘게 썰고 감자는 껍 질을 벗겨 나박형으로 썬다.

단 남비에 기름을 두르고 소고기를 볶다가 미꾸라지

자를 고 끓인 다. 여기 에 된장,

고추장을 넣고 끓이 다가 뼈를 미꾸라지

2배, 비타민PP는 12배이상 본사기자 추, 파, 마늘, 소금을 두고

한소끔 끓인다.

마지막에 고추가루, 후추 가루, 맛내기를 쳐서 국그릇 에 담아낸다.

미꾸라지에 감자를 넣고 국을 끓이면 미꾸라지의 비 린내, 감탕내가 감자에 의하 여 없어지고 맛이 한결 좋아 지게 된다.

본사기자



사화

성

철호, 그림 리성일

였다.

《지금처럼 터발에다 기 껏 삼이나 목화를 심어서 는 백날 가도 안될줄 아나 이다. 그것대신 철따라 파, 마늘, 고추, 가지, 오이, 부 루, 호박, 고수, 무우, 배추 같은 남새를 심는다면 늘 밥 상우에 신선한 남새찬을 올 릴수 있나이다. 이걸 어찌 량반부자들의 밥상을 차지하 는 고기반찬만 못하다 하겠 나이까?》

근달은 옳다거나, 그르 다거나 대답을 줄수가 없 었다.

안해가 집어른들의 밥대접 에 얼마나 왼심을 썼으면 이 런 생각을 다 해냈을가. 구 미도는 식찬을 한가지라도 다가는 절기에 맞게 남새씨 더 놓겠다고 봄에는 산나물 을 뜯어오고 여름엔 버섯따 기, 가을엔 성밖에 나가 토 란같은 귀물을 구해들이고 누구네 집에서 색다른 음식 을 만들었다면 한달음에 달 려가 그 비결을 배워온 안해 였다. 하지만 터밭에서 나는 목화나 삼에 온 집안이 명줄 을 걸고사는 가난한 살림에 서 반찬거리나 얻자고 남새 를 심겠는가.

《여보, 친정집에 갔다오 면서 보느라니 저 오정문밖 에 있는 승학동어귀에 글쎄 한마지기나 일굴만 한 공지 가 있겠지요. 거기에다 목화 나 삼을 심으면 살림밑천을 좀 장만할수 있을것 같나이 다. 》

으로 몽땅 일구겠소.》

장씨는 겨우내 알알이 골 라두었던 종자주머니를 꺼내 서 지붕우엔 호박을 올리고 담밑엔 오이를 심고 잘 썩 은 거름을 듬뿍 낸 터밭에

시골로 품을 팔러 떠났고 시 아버지는 개간지에 심은 목 화를 돌본다고 나가살고 시 할머니와 시어머니는 남새밭 을 가꾸고 시할아버지는 중 손자들을 거느리고 옛말을 들려주고 글도 가르친다며

나물반찬까지 곁들여서 상을

소리가 아침부터 넘쳐난다. 《그게 참말이요? 내 래일 당장 달라붙어 땅이 얼기 전

그날밤 장씨는 거뿐한 마 음으로 단잠에 들수 있었다.

땅이 녹고 해토비가 내리 자 야산들엔 붉고붉은 진달 래가 곱게 물들고 또다시 산 발은 새파랗게 단장하고있 었다.

를 뿌렸다.

근달은 날이 따뜻해지자 바삐 돌아갔다.

장씨는 끼식때면 흥바람이 났다. 싱싱한 부루쌈에 국으 로는 구수한 애호박젓국, 무 우젓국, 반찬으로는 풋고추 지지개, 가지나물, 오이통김 치. 고수짠지같은것들에 산 한가득 채우니 흐뭇한 웃음

시할아버지는 허연 수염 을 내리쓸며 금강산도 식후 경이라 하였거늘 아가덕분 에 입맛이 나서 못된 병이

달아나고 젊어진다고 늘 칭

찬이다. 개들이 혀바닥을 길게 뽑 고 헐뗙이는 삼복철이 닥쳐 들자 그렇게 잘 자시던 시 할아버지가 밥그릇을 절반도 비우지 못하였다. 그러더니 자리에 누워 며칠째 앓음소 리까지 내며 일어나지 못하

장씨는 근심에 사로잡혔 다. 사람이 환갑을 넘기면 나날이 몰라보게 병약해져서 겨울타고 여름타는것은 어쩔 수 없는 법이라고 한다지만 장씨가 보건대 무정하게 달 러드는 그 늙음을 막아주는 가시막대기가 있다. 그 가시 막대기는 다름아닌 효도라는 것이였다. 효도란 어른들을 잘 돌봐드리고 잘 섬기는 자 식들의 도리인즉 무거운 밥 상을 안고 들어갔다가 가벼 운 밥상을 들고 나서는것이

아니겠는가. 시어머니도 안타까와서 무 엇인가 생각하더니 하루는 장씨를 불러 수단을 빚자고 하였다.

수단이란 흰쌀가루를 밤알 만 한 크기로 동글동글 빚어 끓는 물에 삶아내서 식힌 다 음 얼음을 둥둥 띄운 꿀물 에 담그어내는 여름철의 별 식이다.

류도 훨씬 늘어났을뿐아니

라 그 질이 또한 우수하여

이웃나라는 물론 멀리 중근

《고려비단》으로 널리 알려

조선봉건왕조시기에는 전

국각지에 뽕나무를 많이 심

고 물이 좋은 곳마다 이름

난 비단생산기지들을 꾸리

지게 되였다.

시할아버지는 가까스로 자 리에서 일어나앉아 시원하다 면서 몇숟갈 오르내리더니 반그릇도 들지 못하였다 그 는 옷고름을 눈가에 가져가 는 장씨를 바라보면서 부드 럽게 말했다.

《나때문에 너무 속태우지 말아라. 나무도 고목에 들면 뿌리마저 썩기마련이거늘 이

함께 밥을 먹지 않을수 없 었다. 그날 저녁도 장씨는 여느 날처럼 무명을 낳자고 베틀 에 마주앉았다. 그런데 광솔 불에 비쳐진 알른거리는 바

디우에 끼식때면 손주며느리

는 장씨의 손에 숟갈을 들

러주며 《아래가지 황든다고

웃가지도 황들면 나무는 죽

고마느니라.》하고 말했다.

장씨는 살틀하게 내려지는

그 정에 목이 메여 눈물과



건 다 하늘이 정해준거다. 난 아가 맘이면 족하다.》 무거운 상을 도루 안고 안 방에서 나오는 장씨는 눈물

을 금할수 없었다. 혼례식을 치르고 첫 3일나들이를 떠날 적에 술방구리를 꾸러들고 배길에 조심하라며 오정문까 지 따라나오시던 시할아버지 의 모습우에 입맛이 없겠다 며 추리를 쥐여주시던 시할 아버지의 다정한 그 모습이 또 겹쳐났던것이다.

부엌에 따라나온 시할머니

를 안심시키자고 억지로 일 어나서 달게 밥을 드는척 하 시던 시할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지는것이였다.

그래 늙은이의 밥맛을 돌 러드릴수가 없단 말인가. 이 런 때 시원하고 달면서도 쩡 한 보쌈김치가 있었으면 얼 마나 좋을가.

몇해전 자남산동켠기슭의 선죽교근처에 사는 어떤 할 머니가 처음 만들어냈다는 보쌈김치는 김치중의 으뜸 이여서 밥맛을 돋구는데서

치에는 밤이고 배 같은 여러 가지 실과들이 들어가 독특 한 맛을 낼수도 있겠지만 새 빨간 고추가 없었더라면 그 좋은 맛은 생각조차 할수가 없었을것이다

뜸이라고 말할수 있었다.

을가

한 맛과 독특한 향기가 된장 에서 느껴지게 하면 어떨가. 장씨는 그 생각이 아주 그 럴듯 하다고 여겨지자 가슴 이 후두둑 뛰였다.

다음날 아침 장씨는 고추 게 되였다.

-1041 N -1-1-11 - 1-11 2 1

겨울철에 찬바람을 맞으면 눈물샘주변근육이 수축되면 서 눈물을 흘리는 증상이 나 타난다.

만약 눈물샘구멍이 계속 열려있으면 트라코마나 만성 결막염에 걸릴수 있다. 그러므로 추운 날 외출할

때에는 눈보호대책을 잘 세 우고 바람이 세게 부는 날에 는 외출을 삼가해야 한다. 겨울철에는 사람들이 보통

야외활동을 적게 하고 실내 에서 TV 등을 많이 보기때 문에 근거리에서 눈에 지나 혈전이 형성되고 시망막 중 친 피로를 주어 안구건조증 상이 쉽게 나타난다.

내분비균형화괴나 비타민

부족에 의한 경우에는 먼저 그에 해당한 치료를 받아야 하며 순수 눈물부족에 의한 안구건조증은 인공눈물을 장 기간 눈에 넣어주어야 한다. 한편 눈을 자주 비비면 눈물 이 골고루 퍼져 눈알이 마르 는것을 방지할수 있다.

또한 겨울철에 날씨가 차 지면 교감신경이 흥분되면 서 눈알내압이 갑자기 높아 져 푸른색색맹에 걸릴수 있 으며 눈부위의 혈관이 수축 되고 피가 잘 흐르지 않아 심혈관이 막혀 눈출혈을 초 래할수 있다.

본사기자

덮어놓고 외우기만 한탓에

덜거렸다.

한 부자가 수년세월 서당 에서 공부를 했다는 아들에 게 심부름을 시켰다.

《얘야, 글공부를 했으니 세상리치를 터득했으리라 믿 는다. 이 황소를 끌고가 더 두말구 200냥만 받아오너 라. 》

아들이 황소를 끌고 장에 가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어 육중한 황소를 보면서 혀를 찼다.

그런데 한 육고장사가 나 타나 황소의 입을 벌려보 더니 《에크, 이놈의 황소 는 다 늙어빠진 놈이로구나. 웃이발이 한대도 없는걸 보 니.》 하고 입을 삐죽거리는 것이였다. 아들이 보니 정말 웃이발이 한대도 없었다.

《흥, 아버진 웃이발이 다 빠진 황소를 날더러 팔라 했

군. 》 이리하여 황소는 200냥은 커녕 육고장사군이 부르는대 로 겨우 50냥을 받고말았다. 아들은 집에 돌아와서 두

《아버진 웃이발이 다 빠 진 늙은 소를 나더러 팔라 구…》 《뭐라구?! 황소가 웃이발

이 다 빠졌다구?》 《그래요.》 《이 녀석아! 글공부를 그

렇게 했다는 녀석이 (각두

무상치》도 모른단 말이냐?》

그제야 아들이 무릎을 탁 쳤다 《그렇지. 〈각두무상 치〉!》

※각두무상치-대가리에 뿔이 있는 짐승 즉 소에게는 웃이발이 없다는 뜻.